

전주 첫마중길, 문화로 가득

전주시,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첫마중길 곳곳 다양한 문화행사
‘주말N 첫마중’ 버스킹·플리마켓·콘서트·꽃마중 축제 등

전주의 첫인상을 바꾸기 위해 전지역 앞 백제대로에 조성된 첫마중길이 주말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문화행사로 가득 채워진다. 또한, 여름철 주말에는 첫마중길이 가족 단위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물놀이장으로 탈바꿈된다. 전주시는 14일부터 11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첫마중길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지는 ‘주말N 첫마중’ 행사가 전개된다고 밝혔다.

‘주말N 첫마중’이라는 명칭은 주말과 첫마중길을 합성해 만든 용어로, 시민과 관광객이 주말에 첫마중길에 가면 무언가 재미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첫마중길을 찾아주길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매주 토요일 첫마중길 곳곳에서는 버스킹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고, 전지역 수공예작가들의 솜씨가 돋보이는 수공예품 등

다양한 물품을 판매하는 플리마켓(벼룩시장)도 열릴 예정이다. 또, 주말·월별 행사 계획에 따라 다양한 문화행사도 함께 펼쳐질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매월 첫 번째 주말에는 ‘모여라 버스커 전주 버스킹Day’가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매달 경연을 펼친 후, 11월에 버스킹 왕중왕전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매월 두 번째 주말에는 주민 참여형 플리마켓인 ‘로드피크 플리마켓’이 개최되고, 세 번째 주말에는 ‘콘서트 in 첫마중’ 행사를 통해 다양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네 번째 주말에는 전주시민 생활문화 축제의 장인 ‘생활문화 동호회 한마당’이 열린다.

특히, 월별 행사로는 7월말에서 8월초에는 첫마중길에서 가족 물놀이장이 운영되고, 8월

한여름밤의 콘서트 9월 첫마중길 문화제 10월 꽃마중 축제 등 다양한 축제가 펼쳐질 예정이다.

끝으로, 오는 11월 24일에는 첫마중길 감사제행사를 열고, ‘주말N 첫마중’ 행사에 참여한 모든 단체와 기관들이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도 펼쳐진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연간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전주의 주요 관문인 전지역 앞 백제대로를 첫마중길로 조성, 전주의 첫인상을 밝고 매력 있는 얼굴로 바꾸고 바꿨다. 첫마중길은 관광객이 지나쳐가던 공간을 사람이 머무는 공간으로 만들어 역세권 경제를 되살리고, 차량의 속도를 줄여 보다 안전한 도로를 만들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양도식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장은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 전주의 첫인상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주말N 첫마중’ 행사와 첫마중길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의 첫인상인 첫마중길에 버스킹 공연과 벼룩시장 운영 등 주말마다 다양한 문화행사를 펼친다. 사진은 지난해 전주 첫마중길에 마련된 물놀이장에서 시민들이 즐기는 모습.

익산시, 지자체와 함께 백제문화권역 홍보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 홍보·‘금강 식후경’ 개발 방안 논의
지난해 사업평가 우수권역으로 선정 5억원 추가 인센티브 교부

익산시가 ‘백제문화권역’ 지자체와 세계축제협회 등과 손잡고 백제문화권역 홍보에 적극 나선다.

12일 익산에서 열린 백제문화권 월례회의에 방한한 제프 커티스(Jeff Curtis) 세계축제협회 의장을 비롯한 요한 몰렌(Johan Moerman) 로테르담 축제공사 총감독, 마리 미체스키(Marie Myschetzky) 덴마크 코펜하겐 컬처나이트 총괄 매니저, 정강환 배재대학교 관광축제대학

원장 등 국내외 축제 전문가들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백제역사유적지구를 둘러보고 세계축제협회와 연계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 홍보와, 백제문화권역만의 먹거리를 특화한 ‘금강 식후경’ 브랜드의 효과적인 개발 방안을 논의했다.

익산, 대전, 공주, 부여 등 백제문화권 지자체는 앞으로 지역 먹거리를 특화한 ‘금강 식후경’ 여행상품 개발 및 이벤트 추진, 세계축

제협회 등 국내외 기관과 연계한 권역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백제문화권역 유적지의 관광거점으로서 대중적 매력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먹거리·축제이벤트 등 관광객 눈높이에 맞는 흥미요소와 연계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 뿐 아니라 관련기관, 단체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부터 전국에 테마별 특화 관광코스를 조성해 지역관광 품질을 제고 및 대한민국 핵심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백제문화권을 비롯해 전국 10개 권역을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백제문화권역은 지난해 사업평가 우수권역으로 선정되어 5억 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교부받은 바 있다. /익산=우병희 기자

심혜련 교수 저서, 우수학술도서 선정

‘아우라의 진화’ 통해 벤야민의 아우라 개념 밝혀
2011년·2013년 이어 세 번째 우수도서 선정 영예

전북대학교 심혜련 교수(자연대 과학학과)가 쓴 ‘아우라의 진화’가 대한민국학술원 인문학 분야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됐다. 이 책은 벤야민이 말하는 아우라란 무엇이며, 또 이것은 다른 이론가들의 어떤 개념들과 비교 가능한지를 적은 것이다. 저자는 더 나아가 현대 문화 예술철학에서 철학자들은 아우라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현대의 문화 예술 상황에서 아우라의 운명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책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

심 교수의 저서가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세기 매체철학: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가 2013년 문체부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 것을 비롯해 한국연구재단 2013년 기초연구 우수성과로 선정됐다.

2011년에는 심 교수가 참여한 ‘과학기술과문화예술’가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재훈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국악콘서트 ‘다담’ 25일 열어

변호사 박준영·거문고연주자 김준영·아나운서 이우경 등 참여 무료콘서트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명사들의 이야기와 우리음악이 함께하는 국악콘서트 ‘다담’의 7월 공연을 오는 25일 오전 11시 예음원에서 개최하며, 전석 무료로 예약은 국립민속국악원 카카오톡과 전화(063-620-2324)로 가능하다.

이번 무대는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재심과정을 다룬 영화 ‘재심’의 실제 주인공인 박준영 변호사를 초대해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 하는가’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눈다.

변호사 박준영의 이야기와 함께하는 음악은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수석인 ‘거문고연주자 김준영’이 맡는다.

연주자 김준영은 T.S. Eliot의 시 ‘황무지’를 바탕으로 희망이 없는 곳에서도 희망을 품고 살아야만 하는 현대인의 삶에 대한 화두를 던지며 무대를 시작하며, 이외에도 <말로제(制) 김준영류(流)거문고 반조>, <속 S.S.G: String Sinawi from Geomungo> 거문고를 중심으로 한 스트링 시나위를 연주한다.

매달 다양한 이야기 손님을 섭외해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와 국악 연주가 함께하는 국립민속국악원의 국악콘서트 ‘다담(茶談)’은 문



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위한 연중 기획공연으로 개최하며, 공연사회는 JTBC3 아나운서 이우경이 맡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